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주일낮예배 시 말씀을 전해 주신 신완호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으셔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 (8/15) 청소년당은 카자흐스탄 목장(권용기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간식은 한나 목장 임영옥 집사님이 섬겨 주셨습니다.
5. 8월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믿음수업>, <상실의 시대를 사는 그대에게> 이상 3권입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8월 9일	8월 16일	8월 23일	8월 30일
예배기도(오전)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오진석 집사	이현호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호산나목장 (강숙여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 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교회출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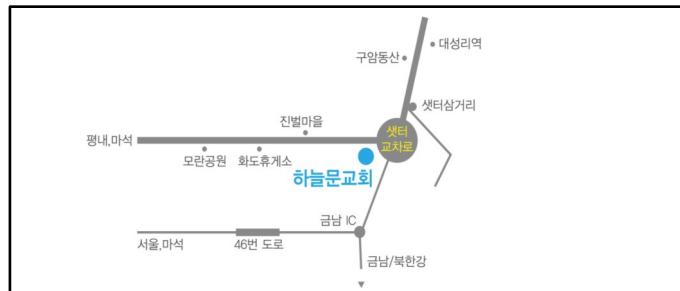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257장(통 189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권영기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눅 10:25-37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사랑하라 그리하면 구원할 것이라’	신완호 선교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1-12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5:12-21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관념’(121)

새벽기도회 새벽 5:30 은혜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소소한 결심, 날마다

오랜 장마로 인해 무더위, 폭염, 열대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름 같지 않은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좀처럼 멈출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야말로 역대급 장마다. 기상청 예보대로 오는 14일까지 장마가 이어진다면 그 기간이 52일로 역대 최장 장마기간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전국 곳곳에 기록적 폭우를 쏟아내고 있는 장맛비는 더욱 우리를 지치게 한다. 도심은 물론 농어촌 할 것 없이 전국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수해를 당한 이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할 뿐이다.

이래저래 삶은 긴장의 연속인가 보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것이다. 힘에 겨울지라도 가야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다시 일어나 시작해야 한다. 벌써 입추(立秋)다. 앞으로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지만,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니 벌써 계절이 두 번이나 나가고 들어온 셈이다. 이제 남은 시간을 내다보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 본다. 지금까지 새해 결심을 지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흔히들 새해에 이런저런 결심을 하는데 세계 어디든 비슷하다. 바벨로니아 사람들도 그랬더니 역사도 참 길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 등. 스스로를 가다듬는 결심이 대부분이다. 당장 안 한다고 크게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아무래도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날 때가 많다.

언젠가 밝혔듯이 올봄에는 결심을 하나 했다. 주로 교회에서 머무르다보니 많이 안 움직이는 편이었는데 오십이 초반까지도 딱히 크게 문제가 없다가 오십 중반에 접어들니 따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가장 먼저 피부과 질환이 찾아왔다. 원인 모를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염증이 생겼다. 이어서 손 주변에 백반증도 생겼다. 의사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나 어쨌거나. 그러면서 우선 운동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이제 웬만하면 날마다 한두 시간쯤 산책하거나 여건이 안 되면 집 안에서라도 몸을 푼다.

결심은 계절이 따로 없다. 꾸준히 지키는 게 문제다. 어쩌다 하루 이틀 운동을 거르면 귀찮은 기운이 슬슬 올라온다. 그걸 바로 때려잡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 소소한 결심은 날마다 하는 게 가장 좋은 듯싶다. 마치 주님과 의 첫사랑을 느꼈을 때처럼 매일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결심은 늘 나를 향하지만 공동체의 평안에도 이바지하겠다는 마음도 먹으면 더 좋을 듯싶다. 큰일이 아닌,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남을 섬기는 일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겠다. 결심은 자기 자유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결심은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결심은 날마다 하기 거창하다면 적어도 철마다 한 번쯤이라도 하면 어떨까 싶다. 그래야 철든 사람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

Written by 허영진